

무주군, 안전한 추석나기 만전

12일~15일 교통 및 재해재난·의료대책·읍면상황반 운영

무주군이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6개 반 29명으로 종합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으로 교통과 재해재난, 쓰레기, 상·하수도, 의료대책반을 비롯해 읍면상황반(생활민원처리) 등 부분별 처리반을 운영한다.

무주군은 민생경제 및 농민·서민 생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각종 재난, 사건·사고예방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귀성객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추석나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병의원 및 약국 등 41곳에 대한 연휴 진료 일정은 무주군 홈페이지와 반딧불소식지

등에 게재해 이용 편의를 돕는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원처리와 시설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연휴 기간 군청(08:00~19:00)을 비롯한 보건의료원(07:00~24:00)과 무풍, 설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09:00~18:00)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주민등록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등 28종/지문으로 본인 확인 절차 후 발급)할 수 있다.

관광안내소는 추석 당일인 쉬고 9월 12일과 14일(10:00~17:00) 터미널 앞과 무주IC 만남의 광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15일(10:00~17:00)에는 무주IC 만남의 광장과 구천동에 소재해 있는 안내소 이용이 가능하다. 산골영화관은 연휴기간 전일 운영하

며 형설지공도서관은 15일(09:00~17:00)에만 정상 운영한다. 수달수영장과 건승체육관은 연휴 기간 휴관하며 반디랜드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은 12, 14, 15일(09:00~18:00), 청소년야영장과 통나무집은 상시 운영한다. 청소년수련원은 15일에만 운영한다.

최복미술관·김환태문학관(09:00~18:00)과 머투와인동굴(10:30~17:30)은 추석 당일만 휴관하고 12,14,15일 정상 운영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군민들이나 방문객 모두 편안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분야별로 꼼꼼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며 "연휴 기간에도 내내 군청부터 6개 읍면까지 비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320-2232)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태풍 '링링' 피해 긴급 지원 총력

7개 읍·면 44.5ha 일손 돕기 추진키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장수군 44.5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수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석연휴 전 피해 접수 및 응급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9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6~7일까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장수군에는 평균 강우량 39.1mm, 최고풍속 11.4m/s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7개 읍·면에서 8일 기준 벼 쓰러짐 17.9ha와 과수 및 농업 시설물 등 26.61ha, 나무전도 2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벼 쓰러짐 17.9ha, 과실류 낙과 20.60ha, 과수 쓰러짐

2.57ha, 비닐하우스 등 시설과손 0.24ha, 인삼시설 3.20ha 등이다.

이에 군은 9일 긴급 일손 돕기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장영수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장 군수와 직원 등 40여명은 장계면 월경리에 위치한 인삼재배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덩시설 제거 등 피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쓰러진 벼 등은 논외 물 빼기와 일꾼 세우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해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농기계는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추석연휴 전까지 신고 접수 1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과수 이외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이나 가축에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산서면 초·중·고 학생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

산서면은 3·1독립만세운동의 성지인 장수군 산서면 관내 초·중·고 학교와 학생들은 최근 역사 반성없는 일본 아베정부의 후안무치한 경제보복에 분노하며 우리역사 바로알기를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산서면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관내 학교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일본 불매운동을 높게 평가하며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본 불매운동 티셔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산서면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회 위원장은 "3·1독립만세운

동의 성지인 산서면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일본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 일은 대견하고 감사한 일"이라며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충효보훈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산서면민들과 학생들이 독립만세 운동의 성지인 산서면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2019 지구촌 재능나눔 제1기 진안군청소년해외봉사단' 해단식을 가졌다.

몽골서 국제해외봉사활동 펼쳐

제1기 진안군청소년해외봉사단 해단식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미자)는 지난 7일 '2019 지구촌 재능나눔 제1기 진안군청소년해외봉사단' 해단식을 가졌다.

주천면 카페안단테에서 진행된 이번 해단식에는 제1기 진안군청소년해외봉사단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신갑수 진안군의회위원장, 김요섭 사회복지과장, 황양의 주천면장, 김경남 주천면자원봉사단장 및 단원, 진안홍삼특공대청소년봉사단, 내외빈 등이 참석했다.

제1기 진안군청소년해외봉사단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양주르흐구에 살고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 몽골 전통가옥 게르 1채를 신축하고 진안군원터인 정자 조성을 위한 사전답사를 펼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게르 수혜자인 담바투야는 현재 남편의 사별과 동시에 시댁에서 버림을 받아 자녀3명과 함께 지인

의 집에 얹혀살고 있는 여성가장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몽골한인회와 바양주르흐구청에 의해 추천되었다.

또한 몽골한인회와 글로벌 리더육성 및 청소년 해외봉사를 위한 '국제교류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원봉사자의 국제교류 해외자원봉사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해단식에 참석한 봉사단원들은 소감발표시간을 통해 해외봉사활동의 감동과 아쉬움을 솔직하게 말하며, 제1기 진안군청소년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최미자 센터장은 "진안군의 대표 얼굴로 몽골에 가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치며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멋진 청소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9일 지진 안전 주간을 맞아 진안시장,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공직자,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민간 예찰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2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 장보기에 나온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안전 주간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신문고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풍수에 보험 가입,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방법, 군민안전보험 보장예

택 등 진안군에서 추진 중인 안전정책 사업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 후에는 진안시장과 공설운동장 주변을 돌며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위험이 발견된 곳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신고 활동도 진행했다.

지진 안전 주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을 계기로 매년 9월 일정 기간을 정해 지진의 위험성과 대피요령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성묘객 대상 진드기 기피제 배부

진안군은 9일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석인 13일 진안군청 당직실과 진안군보건소에서 성묘객들에게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SFTS 환자는 123명 중 사망 28명, 전복 환자 15명 중 사망 5명, 진안군은 환자 3명 중 사망 2명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아 긴장상태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군은 추석 명절에도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성묘 시 돗자리를 깔고, 기피제를 뿌리고, 긴 옷을 입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감염병 예방의 최선·최고의 예방은 언제 어디서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SFTS의 심화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430-8521)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치매극복 작은음악회

무주군은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앞두고 정오의 작은 음악회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한다.

음악회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사회적 소통을 확대하는 기회를 삼는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11일과 16일(11:50~12:40)에는 보건의료원 1층 로비에서, 17일(11:50~12:40)에는 무주종합복지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음악회에서는 치매예방수칙 3.3.3 안내 및 치매예방체조를 비롯해 진행자와 함께 하는 치매예방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2부에서는 인지자극 공연과 체험이 시간이 마련된다.

김민숙 명창과 함께 하는 판소리와 색소폰 연주 무대에서는 적벽가 중 '새 타령'과 강인도 아리랑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고졸업반 마마밴드가 60~70년대 음악을 연주(노래)한다.

공연체험에 관한 의견나누기의 시간도 마련해 소통의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황영내 팀장은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번 기회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치매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